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8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4. 하나님이 친히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여름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우러릅니다. 잔뜩 구름을 머금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악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집터와 울밀을 돌아가며 잡풀을 없애는 농부들의 손길처럼, 우리 내면에 뿌리내리고 있는 악의와 원망과 미움들을 깨끗이 제거해주십시오.

망상에 시달릴 때마다 바깥으로 내달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남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허영심을 벗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롭고 온화한 눈길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면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향해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골3:9-10 .....
인도자	
♠ 교 독 문 .....	11. 시편 28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김지호 선생 II.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다함께	
성경봉독 .....	I. 딤후 3:1-9 .....
다함께	
	II. 요3:16-21 .....
	박혜경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힘 있는 경건 .....
	김재흥 목사
	II. 빛과 그림자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48. 나의 생명 드리니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커지도록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믿으며 순명하십시오. 주님은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계십니다.

다 함 께 : 주님, 우리 마음에 드리운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친 이에게 휴식을 주고,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 위로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절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강좌(29)	신명기 강해(10)
기도: 권혁순 집사	기도 : 하현철 집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황건호 선생 이용한 장로	인도자 김명순 권사

<b>7월</b>	영접위원	김철수	이용한	이호원	최종원	박홍재	안경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준호	한상익	구성실	임정자	오성희

## 침묵의 가치

하루에 세 번씩, 폐제 공동체에서는 모든 일—작업, 성경 공부, 토론—이 중단됩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여듭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수백 명 어떨 때는 수천 명의 젊은 이들이 공동체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바칩니다. 성경이 몇 개 국어로 봉독됩니다. 공동기도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긴 침묵의 시간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매우 독특한 기회입니다.

### ▶ 침묵과 기도

우리가 가장 오래된 기도서인 시편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는다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과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 유형의 기도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청원도 없고 명백한 찬양의 표현도 없습니다. 예컨대 시편 131편에는 고요와 확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때때로 기도는 침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온한 사귄은 말 없이도 가능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짓 떼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품에 안겨 흐뭇해하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생각조차도 필요치 않겠지요.

내적인 침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 우리는 외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잡다한 생각에 휘둘리거나, 상상 속의 대상들 혹은 자기 자신과 씨름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성이 요구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침묵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나의 손길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침묵의 시간은—그것이 비록 짧더라도—거룩한 멈춤, 안식일의 휴식, 염려의 중단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의 들끓음은 마치 예수께서 주무시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를 뒤흔들어놓았던 폭풍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가련한 신세이고, 염려에 차있고,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실 수 있습니다. 그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요동칠 때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막4장).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께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시편은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하고 시작되는 시편 65편의 첫 대목에 익숙합니다. 이 번역은 그리스어 본문에 따른 것인데, 대개의 번역이 따르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침묵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말과 생각이 그칠 때 하나님은 소리 없는 놀람과 경외심 가운데서 찬양받으십니다.(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우리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남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조바심이다. 오만한 사람의 말은 다른 모든 이들을 침묵시키고 그들이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강요한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가 자기에게 말을 걸도록 하기 위해서만 말한다. 겸손한 사람은 적선 외에는 아무 것도 청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기다리며 귀기울인다. (.....)

쓸데없는 말로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듣지 못하고 그 무엇도 되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 가서는, 할 말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말해 버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가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토마스 머턴, 『고독 속의 명상』 중에서

## ▣ **마/음/의/호/읽/는/글**

### 녹색휴가를 생각하며

자, 이제 새로운 휴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녹색을 지향하는 세상이니, 휴가 앞에 녹색이란 단어를 붙여도 좋겠습니다.

첫째, 녹색휴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끈을 통해 상호작용을 합니다. 녹색휴가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느끼고 서로 연결된 것들을 배려하는 휴가입니다. 그렇게 휴가를 계획하고 보내는 사람은 결코 휴가지로 떠나는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창 밖으로 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공간인 계곡물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역 전통문화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꼴불견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녹색휴가는 자연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여름휴가보다는 봄, 가을, 겨울휴가를 계획합니다. 또한, 항상 자연에는 발자국만 남기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합니다.

셋째, 녹색휴가는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측은지심이라는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본성입니다.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이 삶의 토대라는 것을 느끼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인 민성환 님이 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2004년 7월호)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한인철 조운숙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광혜자 노정숙 정완수 김재광 김정길 최숙화 임창선 이광용 형인순  
 박영숙 김혜권 박순희 이유선 방극숙 고사일 최영선 노용래

### 월정헌금:

백요현 박준희 이기분 전영규 김경수 이정은 조병주 김성자 조항신  
 이갑재 김정섭 전영자 이은자 노미향

### 감사헌금:

박홍재 김홍기 박홍엽 임창선 김은정 무명3

생일감사헌금: 권하영 서정순

구도헌금: 김철수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쉽	쉽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7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교동협의회** : 청파1·2동에 속해 있는 교회의 교역자들과 동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교동협의회가 28일(수)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3. **수양회** :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수양회(충주제일교회 수양관)에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요. 이번 수양회 주제는 ‘섬, 평화의 시작’입니다.
4. **신앙실천** : 삼복 더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활동은 줄이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Do less, be more!). 마음이 고요하면 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 8월 영접위원 - 조병무 김용길 박범희 이순정 박옥순 박미영  
 헌금위원 - 윤정덕 이인웅 김중수 김애경 구명자 김명순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